

농업관측정보

우리조합에서는 국내 과일 및 과채 생산량 정보자료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번호부터 게재하고자 합니다. 과일 및 과채 생산량은 우리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사오니, 본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과 일

요 약

■올해 과일 생산량 4% 감소할 듯

올해 과일 생산량은 성목면적 감소와 사과, 배의 저온 및 서리피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 감소할 전망이다. 7~8월에 출하될 포도는 품질이 좋으나 공급량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낮고, 하우스 온주감귤은 품질향상과 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 감소한 35만톤 전망

사과 성목단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하지만 성목면적의 감소로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 정도 줄어든 35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7월 중순 이후부터 출하 가능한 조생종 사과의 품질은 대체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

• 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40만톤 전망

배 생육상황은 대체로 좋지만 호남 지역,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의 저온 및 서리 피해로 성목단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 성목면적도 줄어들어 올해 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 정도 줄어든 40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 노지온주감귤 생산량은 49~52만톤 전망

노지온주감귤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3% 감소하고 성목단수도 약간 감소하여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8% 감소한 49~52만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7월 하우스온주 공급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11%, 8월에는 4%, 9월 이후에도 2% 감소할 전망이다.

• 단감 생산량은 20~22만톤 전망

단감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6% 감소하지만 성목단수가 9~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14% 증가한 20~22만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단감의 10a당 열매 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포도 7~8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6% 증가할 전망

노지포도 생육상황은 지난해보다 좋은 편임. 포도 성목면적은 7% 감소하나 단수가 3% 증가하여 포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 감소한 35만톤 수준 전망. 7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9%, 8월에는 6% 증가할 전망이다. 7~8월 출하될 포도 품질은 지난해보다 좋을 듯.

• 복숭아 7~8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 증가할 전망
저온 및 서리피해를 입은 조생종 단수는 지난해보다 2% 감소한 반면, 중·만생종은 1% 정도 증가하여 복숭아 단수는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 복숭아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20만톤 수준 전망. 7월 출하량은 지난해와 비슷하고, 8월 출하량은 1% 증가할 전망.

사과

■사과 생육상황은 좋아

• 생육상황 조사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는 “좋음” 74%, “비슷함” 18%, “나쁨” 8%, 평년보다는 “좋음” 57%, “비슷함” 28%, “나쁨” 15%로 조사되었다.
올해 사과 생육상황은 일부 지역에 저온 및 우박 피해가 있었으나 대체로 지난해 및 평년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과 생육상황 단위: %

	1. 좋음	1.1. 비슷함	1.2. 나쁨
지난해대비	74.0	1.3. 18.0	1.4. 8.0
평년대비	57.0	1.5. 28.0	2. 15.0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21~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사과 생산량은 35만톤 내외 전망

• 사과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3%(490ha) 줄어든 1만 6,400ha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후지, 쓰가루, 홍월이 각각 4%, 6%, 19% 감소한 반면, 홍로, 기타 품종이 각각 3%, 1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일부지역에 저온 및 서리 영향이 있었으나 생육상황이 좋아 성목단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목단수는 증가하지만 성목면적의 감소로 올해 사과 생산량은 개화기 저온과 여름철 고온 영향으로 생산량이 적었던 지난해보다 1% 정도 줄어든 35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사과 조생종 예상 품질 조사결과, 지난해보다는 “좋음” 78%, “비슷함” 13%, “나쁨” 9%, 평년보다는 “좋음” 62%, “비슷함” 27%, “나쁨” 11%로 조사되었다. 7월 중순 이후부터 출하 가능한 조생종 사과의 예상 품질은 대체로 지난해 및 평년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중생종의 경우 개화기 저온 및 서리 영향을 받은 지역이 지난해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과 생산량 추정

	'04년	'05년	증감률(%)
성목면적(ha)	16,889	16,398	-2.9
생산량(천톤)	357	353	-1.3

주: '05년 성목면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월 조사치임. '05년 생산량은 7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배

■배 생육상황은 대체로 좋아

• 생육상황 조사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는 “좋음” 55%, “비슷함” 20%, “나쁨” 25%, 평년보다는 “좋음” 54%, “비슷함” 27%, “나쁨” 19%로 조사되었다.
올해 배 생육상황은 호남 지역, 충청과 경북 일부지역에 개화기 저온 및 서리 피해가 있었으나 대체로 지난해 및 평년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생육상황 단위: %

	3. 좋음	3.1. 비슷함	3.2. 나쁨
지난해대비	55.0	3.3. 20.0	3.4. 25.0
평년대비	54.0	3.5. 27.0	4. 19.0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21~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배 생산량은 40만톤 내외 전망

• 배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2%(270ha) 줄어든 1만 7,120ha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신

고, 장십량, 황금배, 기타 품종이 각각 1%, 3%, 12%, 3% 감소한 반면 원황은 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배 생육상황은 대체로 좋지만 호남 지역, 충청과 경북 일부지역의 저온 및 서리 피해로 성목단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목면적이 줄어들고 성목단수도 감소하여 향후 태풍 피해가 적고 기상여건이 좋다면 올해 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 정도 줄어든 40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배 생산량 추정

	'04년	'05년	증감률(%)
성목면적(ha)	17,385	17,119	-1.5
생산량(천톤)	452	398	-11.8

주: '05년 성목면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월 조사치임, '05년 생산량은 7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귤

■ 8월 하우스온주 공급량 4% 감소 전망

- 극조기 및 조기가온면적 감소에 따라 6월까지 하우스온주 공급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14% 감소하였다. 7월 공급량도 지난해 동기보다 11%, 8월에는 4%, 9월 이후에도 2% 감소할 전망이다.

- 7~8월에 출하될 하우스온주의 품질(당도, 산도, 외관 등)은 4~6월에 지난해 및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많아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도는 지난해보다 0.4°Bx 높은 11.6°Bx, 당산비는 지난해보다 0.5 높은 11.7로 나타났다. 외관도 열과 및 흑점병 발생이 적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7~8월 하우스온주 가격은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당도 등 품질이 양호하여 지난해(상품 5kg당 2만

2,300원~2만 4,200원)보다 3~7% 높은 2만 3,000원~2만 6,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노지온주감귤 생산량 49~52만톤 수준 전망

- 노지온주감귤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3%(540ha)

■ 하우스온주 공급량 전망

		6월까지	7월	8월	9월 이후	계
공급량	'04년산	3.3	2.9	3.0	13.6	22.8
'(천톤)	'05년산	2.9	2.6	2.9	13.3	21.7
증감률(%)		-14.0	-10.9	-3.7	-2.0	-5.1

주: '05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21~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자료: 제주도.

■ 노지온주감귤 생산량 전망

	성목면적(ha)	생산량(천톤)
'04	19,214	527
'05	18,674	486~516
'05/'04 증감율(%)	-2.8	-7.7~-2.0

주: '05년 성목면적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5월 조사치임, '05년 생산량은 7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감

■ 단감 성목면적 6% 감소

- 단감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6%(860ha) 감소한 1만 4,800ha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별로는 부유 5%, 차랑 6%, 서촌조생 10%, 상서조생 3%, 기타단감이 2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경북이 3~4%, 전남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감 생산량 20~22만톤 수준 전망

- 단감의 10a당 열매 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17% 증가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꽃눈분화기(지난해 7~8월) 기상 여건이 좋아 꽃수가 많았고, 현재까지 기온, 강수량 등 기상여건이 좋아 특별한 재해가 없었고, 생리적 낙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지난해 동기보다 21%, 경북 6%, 전남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감 생산량은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6% 감소하지만 성목단수가 9~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지난해보다 3~14% 증가한 20~22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단감 생산량 전망

	성목면적(ha)	생산량(천톤)
'04	15,661	195
'05	14,802	202~223
'05/'04 증감률(%)	-5.5	3.2~14.0

주: '05년 성목면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월 조사치임. '05년 생산량은 7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도

■ 노지포도 생육상황은 지난해보다 좋은 편

- 노지포도 생육상황은 지난해대비 “좋은” 73%, “보통” 24%, “나쁨” 3%로 나타나서 올해 노지포도의 생육상황은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포도 단위당 수확량은 지난해(1,873kg/10a)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종별로 캠벨얼리는 지난해보다 4%, 거봉과 테라웨어는 1%, MBA와 새단은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포도 생산량은 35만톤 수준 전망

- 포도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7% 감소한 1만 8,230ha 수준이고 단수가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포도 생산량은 5% 감소한 35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캠벨얼리는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9% 감소하나 단수가 4% 증가하여 생산량은 6% 감소한 26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거봉은 면적이 2% 감소하나 단수가 1% 증가하여 생산량은 약간 감소한 5만톤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MBA는 면적이 5%, 단수가 2% 증가하여 생산량이 7% 증가하고, 새단은 면적이 23% 감소하나 단수가 2% 증가하여 생산량이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7월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7% 증가할 전망

- 포도 출하면적은 7월에 노지포도 출하면적이 감소하지만 가온시기가 늦추어진 하우스포도의 본격적인 출하로 지난해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단수는 지난해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하량은 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무가온 하우스 재배면적 증가로 8월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3% 증가하지만 9월 이후에는 노지재배면적의 감소로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수는 각각 3% 증가하여 8월 출하량은 6% 증가하지만 9월 이후 출하량은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포도 생산량 추정

	전체	캠벨얼리	거봉	MBA	새단
성목면적(ha)	'04 19,645	14,546	2,605	1,095	793
	'05 18,230	13,233	2,566	1,150	612
증감률(%)	-7.2	-9.0	-1.5	5.1	-22.8
성목단수(kg/10a)	'04 1,873	1,887	1,793	1,951	1,826
	'05 1,928	1,953	1,817	1,988	1,855
증감률(%)	3.0	3.5	1.3	1.9	1.6
생산량(천톤)	'04 368	274	47	21	14
	'05 352	258	47	23	11
증감률(%)	-4.5	-5.8	-0.2	7.0	-21.6

주: '05년 전체 성목면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월 조사치임.
품종별 성목면적·성목단수·생산량은 7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도 지난해대비 월별 예상출하량 증감률 단위: %

	7월	8월	9월 이후
면적	6.8	2.7	-16.4
단수	2.3	3.1	3.1
출하량	9.2	5.8	-13.8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21일~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복숭아

■복숭아 생산량은 20만톤 수준 전망

• 복숭아 성목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9,850ha이고 단수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2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숙기별로 보면, 조생종은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1% 감소한 2,240ha이고 단수가 2% 감소하여 생산량은 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생종은 면적이 3% 감소한 3,150ha이고 단수가 1% 증가하여 생산량은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생종은 면적이 2% 증가한 4,460ha이고 단수가 1% 증가하여 생산량이 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7월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1% 증가할 전망

• 7월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1% 증가하지만 단수가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하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8월에는 출하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단수가 1% 증가하여 출하량이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숭아 생산량 전망

	성목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톤)
'04	9,857	2,034	201
'05	9,849	2,041	201
증감률(%)	-0.1	0.3	0.2

주: '05년 성목면적은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월 조사치임.

'05년 단수 및 생산량은 7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복숭아 월별 예상 출하면적 단위: ha

	7월	8월	9월 이후
'04	2,992	4,537	1,747
'05	3,023	4,544	1,779
증감률(%)	1.0	0.2	1.9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7월 1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추정치

■복숭아 지난해대비 월별 예상출하량 증감률 단위: %

	7월	8월	9월 이후
면적	1.0	0.2	1.9
단수	-0.6	1.0	1.1
출하량	0.4	1.2	3.0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21일~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과 제

요 약

• 7~8월 수박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전망

7~8월 수박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각각 9%, 3% 많을 전망. 7~8월 수박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많고, 복숭아, 포도 등 대체과일의 출하량도 많을 것으로 보여 7~8월 수박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을 전망. 7~8월 수박 정식면적은 지난해보다 3~6% 많을 전망. 포전거래가격은 지난해보다 29% 낮은 수준.

• 7월 참외 출하량은 작년보다 많고, 8월은 적을 듯

7월 참외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조금 많고, 8월은 6% 감소할 전망. 7월 참외 출하량은 참외 념쿨의 세력이 좋아 지난해보다 조금 많을 듯. 8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8% 적을 전망. 7~8월 참외가격은 수박, 복숭아, 포도 등 대체과일의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낮을 전망. 연장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 적을 전망.

• 7~8월 토마토 출하량은 작년보다 많을 전망

일반토마토는 출하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여 7~8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3% 내외 많을 전망. 토마토 품질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좋을 것으로 보이나 대체과일의 물량이 지난해보다 많고, 토마토 출하량이 크게 늘어 7~8월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겠음. 작년 하반기 토마토 가격이 높아 6월 토마토 정식면적은 32% 증가하였고, 7~8월은 지난해보다 24% 정도 늘어날 듯.

• 7~8월 방울토마토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전망

7~8월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20% 내외 많을 전망. 7~8월 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많고, 대체과일 물량도 늘어 지난해보다 낮겠음. 6월 방울토마토 정식면적은 19% 증가하였고, 7~8월은 각각 35%, 25% 정도 늘어날 듯.

• 7~8월 오이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5% 늘 듯

7~8월 오이 출하면적은 지난해 출하기 가격이 좋아 백다지기 오이 정식이 조금 늘고, 취청, 가시오이도 늘어 5% 정도 증가할 전망. 7월 오이 출하량은 출하예정면적이 증가하고, 단수도 조금 높아 지난해보다 8% 많겠음. 8월은 단수가 낮아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조금 적겠음. 7~8월 오이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겠음.

• 7~8월 애호박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듯

애호박은 지난해 출하기 가격이 높아 7~8월 노지재배 출하면적이 6~11% 늘 전망. 7월 애호박 출하량은 집중호우, 고온 피해를 입었던 지난해보다 단수가 크게 늘어 19% 많겠음. 8월 단수는 지난해보다 조금 낮으며, 출하량은 8% 많을 전망. 7~8월 출하량은 평년보다도 조금 많은 양이 될 듯. 7~8월 애호박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을 전망. 단호박 수입은 소비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하였음.

수박

■ 7~8월 수박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

• 7~8월 수박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각각 9%,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딸기의 후작수박과 2기작 수박 재배면적이 늘었고, 벼 대신 소득이 높은 수박으로 전환한 면적이 많았다. 9월은 추식 출하를 목표로 정식한 면적이 많아 지난해보다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수박 출하예상량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7월	8월	9월
출하예정면적 ¹⁾	9.2	3.2	11.3
단 수 ²⁾	3.3	-1.0	-
출하예상량	12.8	2.1	-

1)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표본농가 조사치.

2)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모니터 조사치.

• 7월 노지수박의 출하면적은 시설수박으로 전환하거나, 복분자, 인삼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여 지난해보다 조금 감소하지만, 8월에 출하될 노지수박은 경북지방의 재배면적이 늘어 지난해보다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7월에 출하될 수박의 단수는 6월 일사량이 많았고 강수량도 적어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8월 수박단수는 작과기인 6월 하순~7월 상순의 일사량이 적어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낙과현상도 발생하여 지난해보다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7월 수박 출하량은 작년보다 많고, 8월은 비슷할 듯

• 7월 수박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13%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8월 수박 출하량도 출하면적이 늘어 지난해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외

■ 7월 상순 참외 가격은 작년보다 34% 낮은 수준

- 6월 참외 도매가격은 상품 15kg 상자당 2만 4,400원(중품 1만 5,8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 평년보다 18% 낮았다.
- 6월 참외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은 주출하지인 경북 성주지역의 착과율이 높았고, 2화방과 3화방의 출하시기가 겹쳐 참외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30%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성주지역 산지거래량은 지난해보다 42% 정도 많았다.
- 7월 상순 가격은 상품 15kg 상자당 1만 8,300원(중품 1만 200원)으로 지난해보다 34%, 평년보다 8% 낮은 수준이다.

■ 7월 참외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늘고, 8월은 감소

- 7월 참외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1% 정도 늘고, 8월은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7월은 성주지역의 6월 기상조건이 좋아 지난해보다 고사주가 적게 발생하여 출하면적이 지난해보다 조금 늘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는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벼농사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면적이 많아 출하면적이 감소할 전망이다. 9월 출하면적은 지난해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외 출하예상량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7월	8월	9월
출하예정면적 ¹⁾	0.9	-6.3	-0.1
단 수 ²⁾	0.3	-2.2	-
출하예상량	1.2	-8.4	-

- 1)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표본농가 조사치.
- 2)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모니터 조사치.

■ 7월 참외 출하량은 작년보다 많고, 8월은 적을 전망

- 7월 참외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1% 정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8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모두 감소하여 지난해보다 8%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일반토마토

■ 7~8월 토마토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20% 정도 증가할 전망

- 7~8월 일반토마토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증가하고, 9월에는 2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작년과 재작년 하반기 토마토 가격이 높아 강원 양구·철원·정선·횡성·영월·화천·홍천·춘천 등 강원도 지역의 토마토 재배면적이 전반적으로 늘었고, 경기 평택, 충남 논산·공주·예산, 전남 고흥, 경북 봉화·안동 등지에서도 재배면적이 늘었기 때문이다.

■ 일반토마토 출하예상량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7월	8월	9월
출하예정면적 ¹⁾	20.0	20.3	20.8
단 수 ²⁾	2.0	2.5	-
출하예상량	22.4	23.3	-

- 1)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표본농가 조사치.
- 2)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모니터 조사치.

- 특히 강원 양구는 정식을 당초 계획했던 5월에서 6월로 15일 정도 늦추어 출하가 8월 상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6월 기상이 지난해보다 좋아 출하시기가 7월 하순으로 10일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고, 충남 논산·공주 등지에서는 신규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7~8월 일반토마토 단수는 지난해보다 2%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7~8월은 기상조건이 지난해보다 좋을 것으로 보여 단수가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7~8월 토마토 출하량은 23% 내외 증가할 전망

- 7~8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23% 내외(평년대비 68~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울토마토

■ 7~8월 방울토마토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19% 정도 증가할 전망

- 7~8월 방울토마토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19% 정도 증가하고, 9월은 20% 늘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 부여·예산·논산, 충북 청원·충주, 전남 고흥, 경북 구미 등지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전남 순천, 전북 완주 등지에서도 신규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울토마토 출하예상량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7월	8월	9월
출하예정면적 ¹⁾	19.5	19.1	20.4
단 수 ²⁾	0.7	0.8	-
출하예상량	20.4	20.0	-

1)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표본농가 조사치.
2)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30일 모니터 조사치.

- 특히 충북 충주는 딸기, 화훼, 엽채류 농가들이 최근 2~3년간 가격이 좋은 방울토마토로 작목 전환을 많이 하였고, 충남 논산은 지난해 딸기 후작으로 벼, 멜론을 주로 하였으나 올해는 토마토 면적을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 7~8월 방울토마토 단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지인 충남, 전남, 충북 등지에서 6월 기온이 지난해보다 좋았고(최저기온 1~2℃ 상승), 6월 하순 일조시간이 많아(작년대비 20~35% 증가) 단수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7~8월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작년보다 20% 내외 많을 전망

- 7~8월 방울토마토 단수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0% 내외(평년대비 7

월 122%, 8월 49%)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이

■ 7월 오이 출하량은 작년보다 8% 많고, 8월은 3% 적을 전망

- 7월 오이 출하량은 출하예정면적이 증가하고, 단수도 높아 지난해보다 8%, 평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8월에는 출하예정면적이 증가하나 단수가 낮아 오이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 정도 적겠지만, 평년보다는 4% 정도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호박

■ 7~8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각각 19%, 8% 많을 듯

- 7월 애호박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19% 많고, 8월은 출하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8%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양이다.

쭈기니

■ 7월 상순 쭈기니 가격은 평년보다 46% 높은 수준

- 6월 쭈기니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당 3,600원(중품 2,300원)으로 지난해보다 44% 낮았고, 평년보다 33% 낮았다.
- 6월 쭈기니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은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비대체재인 애호박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쭈기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쭈기니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하였다.
- 7월 상순 가격은 상품 10kg 상자당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 낮고, 평년보다 46% 높은 수준이다.

【자료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